

위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이다

위로는 오히려 불현듯 찾아옵니다. 길가에 흘러나오는 음악이나 발끝에 떨어진 낙엽일 수도, 유쾌한 택시기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제야 생각합니다. 이토록 까다로운 위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인지 모른다고. 눈길만 주면, 손만 뻗으면 닿을 듯이 우리 주변 어디라도 있지만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만 반짝하고 윙크해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본문 중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 동안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즐기는 공간을 디자인하고 싶었다. 스페인 프로젝트 그룹 엠엠엠엠 mmmm

마음에서 나온 것을 손으로 만든다. 호보 우드워크 Hobo Woodworks

나는 조용한 미래를 믿지 않는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없애는 최첨단 장비를 착용하고 다니는 미래는 믿을 수 없다.
삶은 소음을 만든다. 음악은 더 나은 소음이다. 마르타 산탐브로지오 Marta Santambrogio

디자인은 결국 사람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로산 보쉬 Rosan Bosch

그 모든 불규칙성과 우연들이 나에게 큰 영감을 준다. 마이클 요한슨 Michael Johansson

위로의 디자인 2

*From.
Design*

조창원 지음

○
지쿨론북

위로의 디자인 2

From. Design

조창원 지음

지쿨론북



9 788998 656546

ISBN 978-89-98656-54-6

값 15,000원

Contributor



바우트 베세뮈스 Wout Wessemius
www.wessemius.n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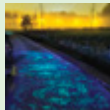
뵘틀링크 건축 Böhrling Architecture
www.bohtlingk.n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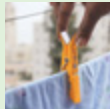
메렐 카호프 Merel Karhof
www.merelkarhof.nl



가와치 고시 Koshi Kawachi
www.koshikawachi.com



스튜디오 루스가르드 Studio Roosegaarde
www.studioroosegaarde.net



이단 노이버그 & 갈 볼카 Idan Noyberg & Gal Bulka
www.noyberg-bulka.com



가스 브리츠먼 Garth Britzman
garthbritzman.com

066

수산나 헤르트리치 Susanna Hertrich
www.susannahertrich.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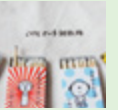
071

첸루웨이 Lu-Wei Chen
www.chen-luwe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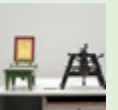
078

코케시 성냥 제작소 Kokeshi Matchmaking
www.kokeshi-m.com



086

레터프로프트타원 Letterproeftuin
www.letterproeftuin.com



095

루안 하오 RUAN Hao
lycs-arc.com



101

엠엠엠엠 mmmm...
www.mmmm.tv



108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 말레르바 Marcantonio Raimondi Malerba
www.marama.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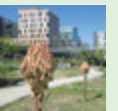
114

호보 우드웍스 Hobo Woodworks
www.hoboworks.ca



121

볼로 앤 디에브르 Vaultot & Dyèvre
www.vaultot.com





탐 앤 비데고르 건축 Tham & Videgård Arkitekter
www.tvark.se

126



존 누아네싱 John Nouanesing
www.johnnouanesing.fr

137



주드슨 보먼트 Judson Beaumont
www.straightlinedesigns.com

144



마이클 요한슨 Michael Johansson
www.michaeljohansson.com

152



더피 런던 Duffy London
www.duffylondon.com

158



로산 보쉬 Rosan Bosch
www.rosanbosch.com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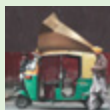
스튜디오 바나나 싱스 STUDIO BANANA THINGS
studiobananathings.com

176



네스푼 NeSpoon
www.behance.net/nespoon

187



마르타 산탐브로지오 Marta Santambrogio
the-fuzzy-logic-project.tumblr.com

196

203

티와이아이엔 텍네스추 TYIN Tegnestue
www.tyinarchitect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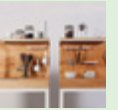
212

다이스케 모토기 Daisuke Motogi
www.dskmt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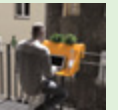
220

더크 비오토 Dirk Biotto
www.dirkbiott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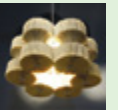
228

마이클 힐거스 Michael Hilgers
michaelhilgers.de



236

룰라 도트 Lula Dot
www.luladot.com



구름 한 덩이

유목민처럼

바람이 하고 간 일

만화책 텃밭

별이 빛나는 길

구름 한 덩이

하루 중 대부분을 건물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하늘을, 그리고 구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 그러나 잠시만 짬을 내서 하늘을 올려다본다면 얼마든지 구름에 치유 받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방금 전까지 땅으로 꺼질 듯했던 마음도 붕 떠오를 것이다. 만약 하늘에서 뭐 하나만 가져올 수 있다면 나는 해도 달도 별도 아니고 구름 한 덩이를 떼오고 싶다.

조물주가 된 것처럼 구름 한 덩이를 디자인해보자. 집 안에 띄워놓고 매일 보고 싶은 구름은 어떤 모습인가. 이 등의 이름은 ‘르누아주Le Nuage’, 프랑스어로 ‘구름’이라는 뜻이다. 네덜란드의 디자이너 바우트 베세뮈스Wout Wessemius는 집 안에 구름 문치를 들였다. 원하는 크기와 형태를 주문하면 구름 한 점에 가린 빛을 완벽하게 재현해준다.

진짜 구름을 닮은 이 하얀 털의 정체는 폴리에스테르다. 섬유조 직을 구름처럼 뭉쳐 전구를 감쌌다.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다 분위기 있는 조명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거실이나 침실, 테이블 위 등 어디에든 놓을 수 있다.

노골적으로 발산하는 빛은 불편하다. 똑바로 바라볼 수 없다. 그러나 구름으로 한 겹 감싼 은은한 빛은 사려 깊다. 밖으로 확장하기보다 안을 향한 빛은 내면을 어루만진다. 구름과 태양의 완벽한 조합이다.

마천루가 하늘을 가리기 전에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을 수놓은 구름 패턴들을 인간의 시선으로 분류하고 이름 붙였다. 뭉게구름, 양떼구름, 새털구름... 이처럼 문학적인 이름들을 붙일 정도로 구름은 인간에게 영감의 대상이었다.

누군가는 구름을 보며 시상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구름을 따라 그림을 그리고, 또 누군가는 구름 같은 사물을 만든다. 구름은 잡을 수 없어서 더욱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한다. 그러나 구름이 주는 더 큰 선물은 위로일 것이다. 하얀 솜사탕이나 눈송이, 솜뭉치나 양털처럼 하얗고 포슬포슬한 것들이 주는 위안의 실체는 뭘까. 새하얀 솜이 불에 파묻히면 왜 마음까지 포근하고 안심이 될까. 그러기엔 부끄러운 나이인 줄 알면서도 왜 가끔 하얀 곰인형을 끌어안고 싶을까. 그 중에서도 구름은 모두에게 공평해서 더욱 고맙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늘에 마구 흩뿌려져 누군가 올려다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거기서 무엇을 얻느냐는 바라보는 사람의 몫으로 남겨둔 채, 오늘도 유유히 흘러간다.



©Wout Westemi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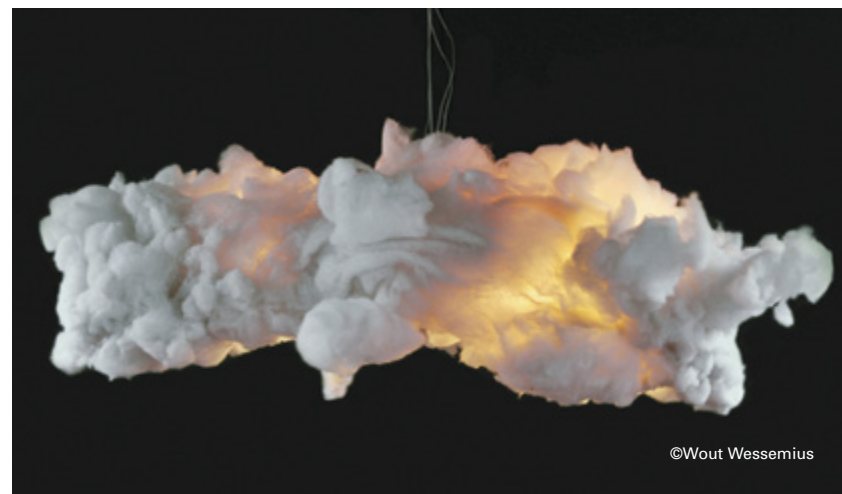
Le Nuage
Dubai



©Wout Wessemius



©Wout Wessemius



©Wout Wessemius



©Wout Wessemius



별이 박힌 밤하늘이 걷히면 구름 패턴의 하늘색 지붕이 펼쳐진다. 새벽녘, 시퍼렇던 구름은 해가 떠오르자 이번엔 불그스름해지더니 금세 눈부시게 하얗다. 뿌리도 틀도 정형화된 모양도 없는 구름 덩어리들이 부유한다. 어디에도 고정되지 않고 하늘바다 위를 유유히 떠다니며 방랑한다. 자유롭고 한가롭다. 진짜 자유란, 진짜 여유란 저런 게 아닐까.

머리 위에 먹구름이 따라다니는 것 같은 날이 있다. 다크서클 같은 어두운 그림자를 쫓처럼 떼어낼 수 없는 날도 있다. 겨우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불을 켜면 새하얀 구름 한 덩이 떠 있다. 내 근심도, 내 걱정도 모두 구름이었나 보다. 형체는 있지만 실체는 없다. 더 무거워져 비가 되어 내리기 전에 흩어버리자. 이제 먹구름을 거들 시간이다.

바우트 베세뮈스 Wout Wessemius

네덜란드 흐로닝언 기술대학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했다. 1981년 엔지니어로서의 일은 그만두고 독립적인 디자이너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주로 구리, 고무, 피혁, 유리, 강철 등의 재료를 사용해 사물을 디자인하며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www.wessemius.nl

유목민처럼

머물고 있으면 떠나고 싶다. 떠나면 다시 머물고 싶다가, 머물면 다시 떠나고 싶어진다. 머물 수 있어 떠나고 싶고, 떠날 수 있어 머물고 싶은 것. 머뭇거리고 떠남의 페이스트리가 겹겹이 쌓이면서 삶은 향긋하게 부풀어 오른다. 죽음이 당도해 그것을 집어삼킬 때까지.

우리는 대부분 한곳에 정착해 살아간다. 매일 같은 곳으로 출근하고 같은 곳으로 돌아온다. 머뭇거리고 관성에 익숙해져도 떠남의 욕망은 은밀하게 꿈틀거린다. 어제와 똑같고, 내일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일상적인 이동의 범위를 넘어서 날을 그려본다. 그날은 이번 주말일 수도 있고, 다음 휴가나 회사에 사직서를 던진 다음 날일 수도 있다. 수 세기 동안 정착민의 생활에 익숙해져도 인간에게 유목민의 DNA는 깊이 박혀 있는 게 틀림없다. 다만 오늘날의 우리는 좀 더 편리하고 세련된 방식을 원한다.